



박찬호

믿음으로 자라는 '박찬호 야구'



지난 시즌 공·수 활약에 도루왕 오르며 '깜짝 스타' 올 안정된 수비에 반해 타율 0.111로 마음 고생
윌리엄스 감독·선배 최형우 등 "좋아질 것" 무한신뢰
17일 NC전 멀티히트로 2타점...역전 득점 기록

'믿음'이 KIA 타이거즈 박찬호를 깨웠다. 박찬호는 지난 시즌 KIA의 '깜짝 스타'였다. 타고난 수비에 달린 공격력까지 더해 KIA 내야 한 자리를 차지했고, 대선배 이범호의 25번까지 물려받았다. 하지만 올 시즌 박찬호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타석에서 마음만 급했고 6월 타격이 수직 하락했다. 지난 16일 NC전까지 6경기에서 빈손으로 돌아서는 등 6월 14경기에서 박찬호는 45타수 5안타, 0.111의 타율에 그쳤다. 타격 부진은 수비에서의 조금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쉬운 초반 성적에도 박찬호는 KIA의 올시즌과 미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이자, 내야 수비의 핵심이고 지난 시즌 '도루왕'에 오른 센스도 KIA에는 중요하다.

박찬호가 인내심으로 지켜보던 윌리엄스 감독을 다시 웃게 하고 있다. 16일 긴 침묵을 깨고 안타를 만든 박찬호는 17일에는 멀티히트로 2타점을 올렸다. 지난 5월 22일 이후 4번째 도루도 성공했다. 이날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3으로 앞선 7회초 1사 1-3루에서 나성범의 땅볼 타구를 뒤로 빼트리 동점과 역전의 발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박찬호는 이어진 공격에서 다시 팀을 웃게 했다. 5-6으로 뒤진 7회말 무사 1루에서 박찬호는 우전안타를 날렸고, 이후 역전 득점까지 기록했다. 팀을 들었다 놓은 박찬호는 "미안함"을 먼저 말하고 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안타를 기록한 날에는 베이스를 밟으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그만큼 팀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박찬호는 "예전처럼 못하면 2군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 지금은 대수비, 대주자로드 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다. 책임감이 커졌다.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담 많은 박찬호 뒤에는 '믿음'의 사령탑과 선배들이 있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찬호의 부진에도 "리그 최고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격 부진이 수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며 믿음을 보여줬다. 최형우도 "특타도 했고 좋아질 것이다. 잘할 것이다"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단호하게 '긍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찬호를 깨운 '믿음'이 있었다. 지난 16일 경기가 끝난 뒤 박찬호는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 팬에게 선물했다. 박찬호는 "게임하다가 외야를 돌아봤는데 어떤 분이 (그동안 사용했던) 46번, 4번, 25번 유니폼을 걸어놓고 계셨다. 저 멀리서 의자도 없는데 서서 저렇게까지 나를 응원해주시는 것을 보고 정신이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났다"고 언급했다. 박찬호는 불펜 포수 이동건에게 부탁해 경기가

끝난 후 팬에게 유니폼을 전달했다. 박찬호는 "지난해보다 많은 변화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실패다. 초반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꼬이니까 답이 안 나왔다"며 "땅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땅볼을 치기 싫어서 변화구 대처하려고 스윙을 길게 가져가면서 준비했는데 실패였다. 사실 땅볼은 똑같이 나오고 좌측 안타가 많이 없다"고 초반 부진을 설명했다. 앞선 인천 원정에서 윌리엄스 감독과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시 변화를 줬다. 박찬호는 "감독님께서 인천 원정 때 일찍 나오셔서 맨투맨으로 지도를 해주셨다. 조금 더 간결하게 스윙이 나올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다"며 "이 정도 타격인데 믿고 써주셨고, 워낙 엄청난 타자이기도 해서 믿고 따라가자고 생각했다. 또 작년에 하던 매커니즘하고 비슷해서 새로 변화를 줬다"고 언급했다. 부진을 털어낸 박찬호에게 아직 많은 시즌이 남아있다. 박찬호는 "위축이 많이 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다"며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화려하게 빛나는 주연은 아니더라도 확실한 조연이 되겠다.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우중 휴식

NC와 3차전 취소... 오늘 삼성전 가능 출격

KIA타이거즈가 비로 하루 쉬어간다.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3차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예보되면서 우천 취소가 결정됐다. KIA의 시즌 첫 우천 취소.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비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지만 KIA는 '선두' NC와의 1·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앞선 KT, SK전까지 3연속 위닝 시리즈다. 하루 휴식을 취한 KIA는 19일부터 안방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홈 3연전을 치른다. 앞선 삼성 원정에서는 KIA가 1승 2패로 무징 시리즈를 기록했었다. KIA가 능이 하루 선발 로테이션을 밀어 삼성전 첫 경기에 출격한다. 이어 예정된 순서대로 임기영, 양현종이 선발로 등판해 4연속 위닝 시리즈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진흥고, 31년만에 황금사자기 8강

중앙고에 7-4 승리... 오늘 오후 울곡고와 4강 다튀

광주 진흥고가 파주 울곡고와 황금사자기 4강 진출을 다룬다. 진흥고가 지난 17일 열린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16강전에서 전통의 서울 중앙고를 상대로 7-4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진흥고는 1989년 이후 31년 만에 황금사자기 8강에 올랐다. 진흥고는 19일 오후 2시 30분 파주 울곡고를 상대로 준결승행을 노린다. 1회말 진흥고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다. 불넷으로 살아나간 선두타자 김길모가 정주영의

희생번트 때 나온 투수 송구 실책으로 3루까지 향했다. 그리고 김주홍의 우익수 플라이로 홈을 밟았다. 하지만 진흥고가 불넷으로 시작한 3회초 수비에서 중앙고 권민혁의 적시타로 동점을 허용했다. 1-1로 맞선 5회에는 2사에서 불넷으로 주자를 내보낸 뒤 폭투와 적시타로 1-2 역전을 당했다. 중앙고 이정찬의 좌중간 2루타가 나온 7회초 세번째 실점은 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상대의 실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7회말 선두타자 김주홍의 안타와 이록의 불넷, 이

준서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 신명승이 1루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고은수의 불넷으로 베이스가 가득했다. 그리고 좌익수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고, 정주영의 적시타를 묶어 4-3 역전에 성공했다. 진흥고는 김현도의 2루타로 시작된 8회 다시 3점을 뽑아내면서 승기를 가져왔다. 한편 20일부터는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일정 시작된다. 전라권에서는 광주동성고와 화순고가 오전 9시 30분 군산월명야구장에서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광주일고-순천 효천고(오후 12시), 군산상고-나주 광남고(오후 2시 30분)의 경기가 열린다.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정읍 인상고와 광주진흥고(오후 9시 30분), 화순고-순천효천고(오후 12시), 광주 동성고-광주일고(2시 30분)의 대결이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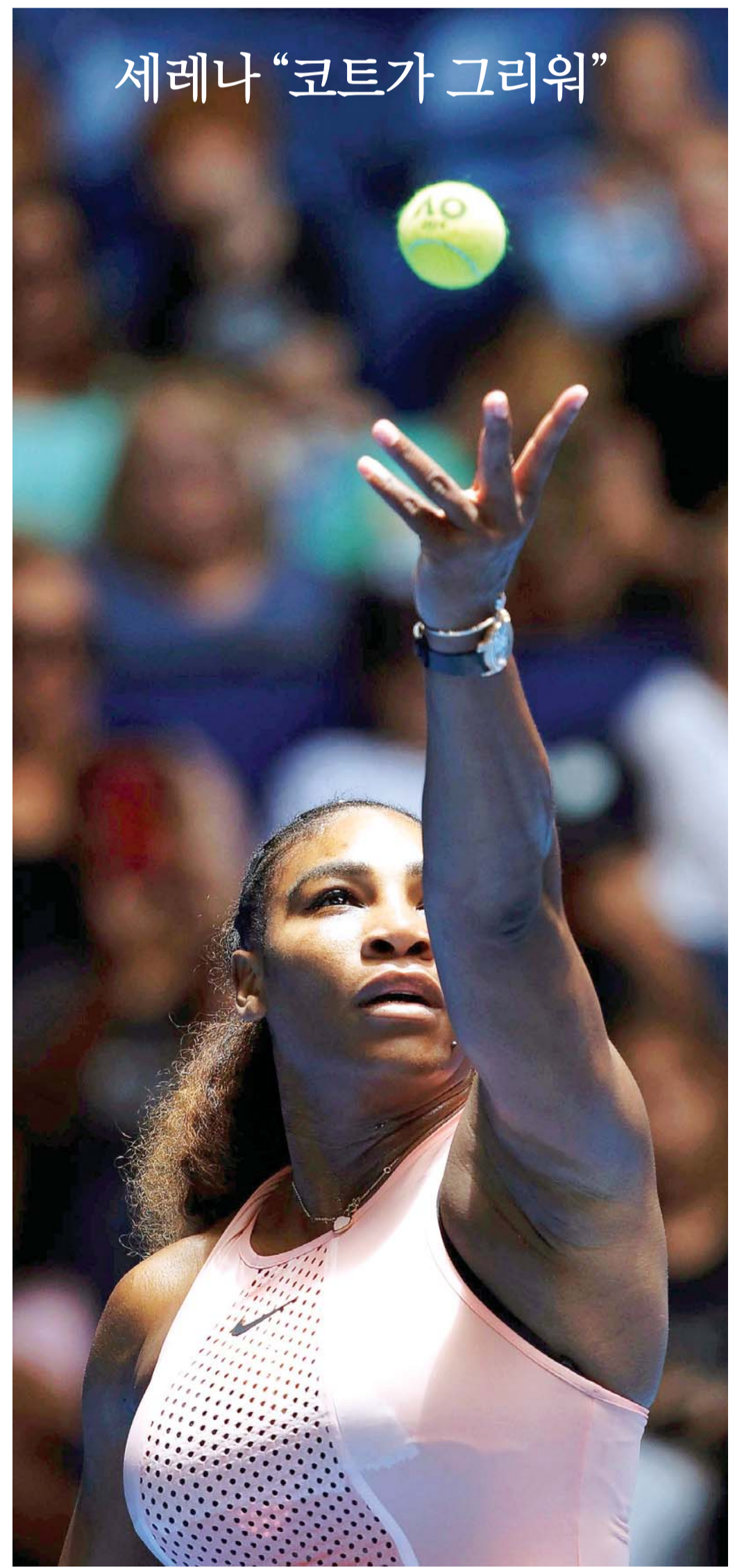
US 오픈 테니스 8월 31일 무관중 개막

세레나 윌리엄스 출전...미국 테니스협, 영상 메시지 공개

세레나 윌리엄스(9위·미국)가 8월 31일(한국시간) 개막 예정인 US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US오픈을 개최하는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8일 "빨리 올해 US오픈에 뛰고 싶다. USTA가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를 잘한 것 같다"고 말하는 윌리엄스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올해 US오픈은 8월 31일부터 2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5월 프랑스오픈이 9월로 미뤄지고, 6월 뮌헨은 취소되면서 US오픈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했다. 그러나 전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올해 US오픈이 관중 없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래

일정대로 올해 US오픈이 열리게 됐다. 최근 2년 연속 US오픈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한 윌리엄스는 "팬들이 그림자"며 "빨리 뉴욕에 가서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의욕을 내보냈다.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을 한 번 더 할 경우 마저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24회)과 동률을 이룬다. 2017년 9월 출산한 윌리엄스는 이후로는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 네 차례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했다. 반면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는 "올해 US오픈에 출전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 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 1, 2위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스페인)도 올해 US오픈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대회에 얼마나 많은 톱 랭커들이 US오픈에 출전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USTA는 18일 올해 US오픈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메인 코र्ट인 아서 애시 스타디움과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र्ट에 선심 대신 전자 판독기를 사용하고 볼 퍼스 역시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예선을 폐지하고 혼합복식과 주니어, 휠체어 경기도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단식의 경우 남녀 각 120명이 세계 랭킹에 따라 본선에 직행하고 남은 8장의 본선 티켓은 와일드카드 몫으로 돌아간다. 64개조가 출전하는 남녀 복식은 올해 32개조로 축소한다. US오픈이 9월 12일에 끝난 뒤 1주일 후 개막할 예정이었던 프랑스오픈은 일정을 1주일 늦춰 9월 27일에 개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세레나 "코트가 그리워"